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동심포지움 개최



▲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포지움이 지난 11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회의원과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11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가 후원한 이 심포지움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의 화두인 녹색성장과 관련한 건물의 에너지절약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조정식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전체 중

약 30% 정도가 주택 및 건축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축물 인증제도 등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들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등 정책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이 심포지움을 통해 건축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부·학계·업계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원하며 나아가 제도 및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인 개선안들이 도출되

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조균형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이 심포지움은 학계, 산업계, 정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면서 “오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건물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정책입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학계(건물에너지, 친환경, 건축설비 등), 업계(건축환경 설비 설계·시공·감리 분야), 정부(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및 기술발전 개선대안을 마련하여 국가적인 대명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안병욱 충청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일환 국토해양부 과장이 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정책을 △허정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미국의 건물에너지절약제도 및 정책을 △이응직(세

명대학교 교수와 김삼열 동의대학교 교수가 EU의 건물에너지절약제도 및 정책을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주택·건축물에 관한 에너지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본부장과 김일환 국토해양부 과장, 김태영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손장열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승복 연세대학교 교수, 전재홍 현대건설 상무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본부장은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 품질향상 및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기계설비분야의 품질향상과 기술발전, 더불어 국가 에너지절감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본부장이 발표한 ‘기계설비품질향상 및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내용을 게재한다.☉



▲ 심포지움이 끝난 후 기념촬영(왼쪽 아래 두 번째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아래 좌로부터 4번째 조균형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회장, 5번째 손장열 대한건축학회 회장)

기계설비품질향상 및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김경희 /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본부장입니다.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포지움을 마련하신 조정식 의원님과 건축친환경설비학회 조균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제발표를 하신 국토해양부 김일환 과장님, 허정호 교수님, 이웅직, 김삼열 교수님과 송두삼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정책과 선진외국의 정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지난 7월 13일 마흔 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에 대하여 소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정책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은 에너지절약계획서(건축법),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주택성능등급제도(주택법) 등이 있습니다.

이중 주택성능등급제도는 모든 정책이 설계단계에서 시행되는 정책, 즉 분양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 및 성능등급 표시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착공 전 한 번 1등급을 받으면 완공 후부터 건물철거 때까지 아무런 성능이 저하되더라도 1등급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주체인 기계설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되지 않으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았으면 계속 1등급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기계설비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 선진외국 특히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규정이 있음

기계설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정책 부재(관련 법령이 없음)

기계설비공사비 : 건설공사 전체공사비의 20~30% (LCD·반도체는 50%)

에너지소비주체 ⇒ 기계설비

※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환경 등 기계설비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는 관련법령 내에서 지속적인 발전

기계설비는 설계 시공단계는 물론 사후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된 법령이 전무(일부기초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한 것입니다.

※ 특히 에너지소비주체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정 시급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국회에 제출

따라서 지난 7월 13일 마흔 한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 오늘 심포지움을 주최하신 조정식의원님께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공품질향상과 철저한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기계설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통과에 극렬히 반대하는 단체도 있었으며,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에너지소비주체인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법안 통과를 수용기로 입장을 선화하였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설비건설업계는 금년 내 본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초로 기계설비관련법이 제정되는 것이며, 향후 이 법이 발전되어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가 모두 포함되는 “기계설비 기술관리법”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인 “건물에너지절감정책” 실현에도 본 법안이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시공 · 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과정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기계설비관련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이나 시공 및 유지관리체계의 부재로 에너지낭비요인 발생
 - 2006년 기준으로 국내에너지 소비량은 239.8백만 TOE에 달하며 기계설비를 통한 에너지소비는 전체 소비의 약 40%에 해당
-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주체인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첨단화로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증대
 - 기계설비분야 산·학·연 공동으로 설비건설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의 기술관련 법령제정을 추진키로 결정

1

기계설비시공 · 관리기준법 제정 경위

-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제1차 및 2차 워크샵 개최('08. 4. 11, '09. 2. 11)
 - 설비건설협회 회장단, 시도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샵 개최
- 설비건설 발전위원회 구성 및 발전방안 논의
 - 설비건설관련 학계, 연구소, 업계 등 16명으로 구성된 설비건설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가칭 '기계설비기준법' 제정을 위해 고려대와 연구용역계약 체결
 - 용역기간 : 2008. 8. 1 ~ 2009. 1. 31(6개월)
 - '기계설비시공 · 관리기준법' 제정방안 연구보고서

완료('09. 1. 31)

- 「기계설비시공 · 관리기준법」법리 검토('09. 1. 31 ~ 2. 28)
 - 국회 법제실 및 법 전문가에게 법리검토 의뢰
- 기계설비시공 및 관리분야 역할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 완료('09.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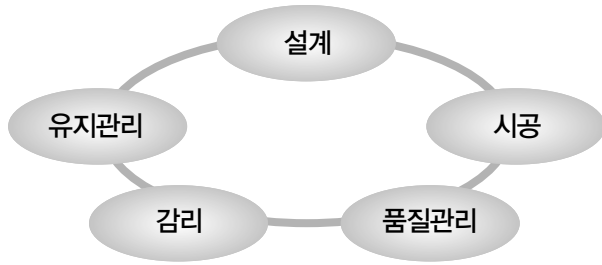
2

기계설비시공 · 관리기준법안 발의

- 「기계설비시공 · 관리기준법」의원입법 발의(국회, '09. 7. 13)
 -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로 41명 국회의원 공동발의

3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적용범위 및 주요내용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적용범위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품질관리·감리·유지관리 5개 분야 중 기계설비 시공, 품질관리, 유지관리 분야를 법 제정 범위로 함.

※ 설계 및 감리분야는 법 제정 후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추진 검토

□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주요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향

상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기계설비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기계설비발전위원회를 둠(안 제5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계설비 시공의 기술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시공·품질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기계설비사용자는 월 1회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11조).

4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제정시 기대효과

- 기계설비의 품질향상, 기술발전 및 에너지 절감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절감
- FTA 체제 하에서 기계설비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는 세계사와 유명인물

퐁파두르 부인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죽은 이후 파리의 상류 사회에서 는 정부를 두는 일이 유행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이미 유부녀였던 퐁파두르 부인을 정부로 두었다.

퐁파두르 부인은 미모와 재치가 뛰어났다고 한다. 지성 적이었으며 예술 전반에 대해 안목이 높았기 때문에 베르 사유 궁전의 장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퐁파두르 부인 은 프랑스 문예를 진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극장의 건립부터 화가들까지 퐁파두르 부인의 후원을 받을 정도

였다.

퐁파두르 부인은 가벼운 옷감에 주름, 레이스, 리본, 꽃 등을 장식하여 옷을 해 입었는데 그녀가 입는 옷은 유행이 되었다. 또한 귀가 흰히 보이는 머리를 하자 이것 역시 퐁 파두르 두발이라 불리며 유행이 되었고, 홍조를 강조하는 색조 화장도 유행이 되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